광주시청 야외웨딩 9쌍 예약… MZ 감성 저격

합리적 비용에 여유로운 예식… 나만의 결혼식 '인기'

12일 제1호 웨딩마치… 예비부부 대상 결혼식 상담도

예식장 대관료 부담 없이 '나만의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광주시청 '빛의 정원'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올해 시청사 공공예식장 '빛의 정원' 예약이 총 9건(4월 2쌍, 5월 2쌍, 9월 5쌍) 접수됐다고 밝혔다.

야외결혼식이 주목받는 것은 고물가시대에 합리적 비용과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롭게 결혼식을 치를 수 있고, 개성 있고 특별한 결혼식을 원하는 엠제트(MZ) 세대의 욕구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야외결혼식 예약을 한 예비부부는 "시청 야외광장 등 경관이 너무 아름다워 야외결혼식 장소로 손색이 없고 하루에 한 팀만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시간 제약없이 특별한 결혼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빛의 정원은 예비부부 또는 양가 부모 중 1인이 광주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이면 이용할 수 있다. 예식장 이용은 주말 및 공휴일 주간에 가능하며, 1일 1예식을 기준으로 선착순이며 예식 6개월 전부터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광주시 총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613-2881) 또는 공유누리 플랫폼(www.eshare.go.kr)에서 하면 된다.

결혼식 비용은 시설 사용에 따른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 야외광장 등 실외는 1일 1만원, 실내는 시간당 1만원이며 냉난방비는 별도이다. 단 꽃장식이나 테이블·의자 등은 개별 준비해야 하며 광주시에 문의할 경우 관련 업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식사는 혼주가 원하는 경우 시청 구내식당을 활용해 국수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1인당 5000원이다. 완성품 위주의 추가 음식도 반입할 수 있으며 케이터링(뷔페)도 가능하지만, 야외광장에서만 허용된다.

한편 오는 12일 오후1시 시청 빛의 정원에서는 제1호 예비부부가 웨딩마치를 울린다.

빛의 정원 제1호 커플 주인공은 "가족·지인 위주의 특별한 결혼식을 하고 싶었고 일반예식장에 비해 가격, 시간, 공간적으로도 가성비가 좋은 거 같다"며 "1호 커플의 영예를 얻어 매우 기쁘고 광주시민으로서 의미있는 장소에서 결혼할 수 있게 시청을 개방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날 야외웨딩 전문업체와 함께 예식 상담을 진행하며,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8~10일 사전 신청을 받는다.

황인채 총무과장은 "이번 1호 커플은 일반 예식장에 비해 11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했다"며 "더 이상 과도한 결혼식 비용을 쓰지 않아도 빛의 정원에서 특별하고 기억에 남을 결혼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도일 기자

'빛가람 치유의 숲'에서 자연이 주는 힐링 즐기세요

전남산림연구원, 맨발숲길 등 산림치유 프로그램 8종 운영

전라남도산림연구원(원장 오득실)은 오는 11월까지 빛가람치유의 숲에서 도민 건강증진을 위해 산림치유프로그램, 숲해설, 유아숲 교육 등 3종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한다고 밝혔다.

산림치유프로그램은 청소년 대상 두드림(林), 직장인 대상 채우림(林), 가족 대상 어울림(林), 임신부부를 위한 숲태교, 65세이상 어르신 대상 설레림(林), 치매환자·장애인 대상 헤아림(林), 질환자 대상 건강드림(林), 민원담당 공직자 대상 마음누림(林) 등 대상별로 차별화된 8종을 맞춤형으로 운영한다.

또한 숲이 지닌 건강과 휴식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자연체험 학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 숲해설가가 진행하는 숲해설 프로그램과 유아숲지도사 아이들을 대상으로 자유로운 놀이와 체험 위주 교육의 장을 마련해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하도록 유아숲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운영은 산림치유의 경우 매일 오전, 오후 각 2회씩 2시간(오전 10시~12시·오후 2시~4시), 인원수는 10~15명 단위로 진행되고, 이용료는 1인당 1만 원이다. 숲해설·유아숲 교육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1~2시간, 인원수는 10~15명 단위로 진행되며, 이용료는 무료다. 프로그램은 전화 상담을 통해 누구나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전라남도 빛가람 치유의숲은 2024년 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한 전국의 102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기관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이는 전국 치유의 숲 운영기관 중 유일한 수상이다.

/이승원 기자

광주 남구, '상반기 통일열차 만석' 10일 첫 출발

탑승객 330명 태우고 강원도 철원으로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8일 "올해 상반기 2차례 운행하는 통일열차의 모든 좌석이 매진됐다"면서 "오는 10일 효천역에서 강원도 철원행 첫 번째 열차가 힘차게 출발한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상반기 통일열차 좌석이 모두 팔렸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바라는 많은 주민들께서 높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첫번째 열차는 탑승객 330명 가량을 태우고 강원도 철원으로 향한다.

올해 철원행 통일열차 탐방 코스에는 철원 역사문화공원과 노동당사가 새롭게 추가됐다.

노동당사는 국가 등록 유산으로, 지난해 연말까지 보수 정비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동안 관내 주민들이 둘러보지 못했던 곳이다.

한국전쟁의 상흔을 간직한 곳으로, 1940년대 북한 노동당의 당사로 사용된 건물이다.

철원 역사문화공원은 1930년대 철원군의 옛 시가지를 축소판으로 재현해 놓은 공간으로, 당시 군청 건물을 비롯해 경찰서, 극장, 역, 학교, 은행 등 근대적 건물을 구경할 수 있다.

또 지역 특산물을 파는 문화상점과 복고다방 등지에서 옛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며, 역사 전시 체험관도 마련돼 있어 철원 지역의 역사문화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콘텐츠 보강으로 관내 주민들이 비무장 지대에서 분단 현장을 체감하는 유익한 시간을 보낼 것으로 기대된다.

두번째 통일열차는 오는 5월 22일 경기도 임진강역을 향해 출발한다.

이번 열차 역시 탑승객으로 가득찬다. 주민 330명 가량이 비무장 지대 탐방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코스는 개성 땅을 코 앞에 둔 파주 지역 비무장 지대에서 도라산 전망대와 제3땅굴을 관람하고, 버스를 타고 통일대교를 건넌 뒤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망향비를 비롯해 임진각 관광지를 둘러볼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통일열차가 통일교육 및 한반도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 활성화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다가오는 하반기 통일열차를 비롯해 내년에도 해당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오는 8월에 하반기 통일열차 탑승객 모집에 나설 계획이며, 하반기 통일열차는 오는 9월과 10월에 각각 효천역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임채일 기자

생활 친화적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 박차

도서 구입·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 공모사업 14일 마감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지역공동체 문화 형성의 기반이자 동네 문화사랑방인 사립 작은 도서관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한 '2025년 사립작은 도서관 활성화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활성화를 기획 중인 관내 사립 작은 도서관에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비, 자원봉사자 실비, 도서 구입비 등 최소한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자격은 동구에 등록된 사립 작은 도서관이며, 지방 보조금 관리 시스템(보탬e)을 통해 오는 1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서류 및 현장 심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 도서관은 5월부터 도서관 특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사업 종료 후 성과 공유회를 12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2월 임택 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5년 운영계획 공유 및 작은 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바 있다.

올해 활성화 사업으로는 ▲'운영자 역량 강화 및 자생력 확보'를 위한 공·사립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권역별 간담회 등 정보공유 및 소통 기회 확대 ▲인문·독서 동아리 모임 장소 등 인문나눔 공간 활용 ▲사립작은도서관 책 배달 서비스 시행 ▲동구 도서관 누리집 개선 및 고도화 ▲맞춤형 찾아가는 작은 도서관 강좌 확대 운영 등이 있으며,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작은 도서관을 '생활의 중심이자 일상적인 인문 활동이 이뤄지는 문화사랑방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할 계획이다.

공모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인문도시정책과 도서관팀(☎062-608-4728)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철수 기자

북구, 여행업계에 활력 불어넣는다… '북구상생 힐링투어' 추진

북구 관광지 포함된 투어 상품 개발 시 지원금 최대 190만 원 지급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고사 위기에 놓인 지역의 여행업계 지원을 위한 '북구상생 힐링투어'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북구상생 힐링투어'는 작년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차갑게 얼어붙은 지역의 관광 및 여행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올해 처음 마련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북구에 소재지를 둔 여행업계가 북구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 및 운영하면 최대 19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북구는 구비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최대 25개의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며 오는 21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여행사를 모집한다.

힐링투어의 여행 상품은 1일 코스이면서 북구의 관광지 1개소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고 투어 운영에 제공되는 중식 및 간식과 필요한 차량 임차 시에는 북구 소재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힐링투어에는 최소 15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해야 하고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관광 약자를 우선 모집해야 하며 투어 참여 관광객에게는 1인당 5천 원의 이용요금이 부담된다.

아울러 투어 운영 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와 동행하여 스토리텔링형 관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북구 관광자원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힐링투어 참여 여행사 선발은 21일까지 접수된 사업 제안서를 바탕으로 관광 관련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 계획의 적정성, 북구 관광지 홍보 방안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하고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관광 상품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여행사는 북구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방문 또는 이메일(buldozer79@korea.kr)로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체육관광과(☎062-410-6625)로 문의하면 된다.

/송현근 기자